전공서적에 담긴 것

2010-11755 전기정보공학부 김한울

어느 날 문득 책장을 돌아보았다. 책장 한 켠에는 그 동안 사용했던 전공서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. 졸업을 앞둔 시기이다 보니 꽤나 많은 책이 있었다. 찬찬히 책들을 살펴보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길지는 않은, 빠르게 지나갔지만 또한 짧지는 않은 내 학부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다. 대학을 다니며 즐겨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들은 내 삶과 닿아있고 또한 닮아있었다.

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꽂은 책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가 수업을 들었던 그 순서 그대로였다. 그 학기, 그 때 즐겨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옆에 두고 내가 무얼 했었는지 순서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.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고, 책들은 내 학창시절의 표식처럼 꽂혀있는 듯 했다.

뽀얗게 먼지가 쌓였지만 한 권 꺼내 먼지를 털면 꽤나 근사하다. 표면에 자잘한 흠이 있을 뿐, 표지는 여전히 뻣뻣하고 구겨진 곳 없는 책이 대부분이었다. 비단 이 책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. 시작할 땐 열심이었으나 중간에 옹졸해지고 마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. 어쩌면 내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만큼, 끝을 본 것이 드물다. 먼지를 턴 책을 보고 있으니 뻣뻣한 표지만큼이나 털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못내 남는다.

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. 아마도 이 책들을 다시 꺼내어 묵은 먼지를 털고, 차근차근 읽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. 책장 한 칸을 오롯이 차지하는 건 그저 공간 낭비일 뿐이다. 그렇지만 여전히 이 책들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건 내 학창시절의 기억과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인 것 같다. 졸업을 한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. 전공서적을 다시 꽂아두고, 다른 책장을 비우며 글을 남긴다.